고창군립미술관 서예 대가 작품 전시 '시선 고정'

'추사(秋史) 주련과 진기풍컬렉션' 6월까지

고창군립미술관(고창판소리박물관 별관)에서 '추사(秋史) 주련과 진기풍 컬렉션 서예대가(大家)전'이 오는 6월까지 개최된다.

고창군립미술관에서는 인촌 김성수선생 후손들이 기증한 추사 주련 9점, 창암 이삼만 주련 2점 등 11점과, 무초 진기풍 선생이 기증한 서예작품 중 추사와 이삼만의 서예작품을 포함해 소치 허련, 강암 송성용, 석전 황욱, 의재 허백련, 보정 김정희, 소전 손재형 등 서예 거장들의 작품 86점을 전시하는 '추사(秋史) 주련과 진기풍컬렉션 서예대가(大家)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의 단초가 된 작품은 고창의 아산면 반암마을 울산김씨 제실에 보존되어 오다가 발견되어 주목을 받았던 추사 주련 등 11점이다.

고창군에서는 이 주련에 일찍이 무초 진기풍 선생이 기증한 추사와 창암 이삼만 선생의 작품 및 서예 거장들의 작품을 더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 거장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뜻 깊은 전시를 기획했다.

이번 전시는 인촌 김성수 선생의 후손들이 지역에서 발견된 문화유물은 발굴지역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자료를 판소리박물관 별관 군립미술관에 영구 기탁하면서 마련됐다.

전시를 통해 추사가 제주도 귀향길에 거쳐갔던 고창 행로에서 드러나는 유서 깊은 고창의 자연과 인문학적 문화유산을 서예의 대가 추사와 창암을 통해 반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사 글씨 주련 9점은 3종의 판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것은 중국 원대의 시문(詩文)의 대가 우집(虞集)의 시구를 쓴 것[子瞻文章世稀有 謫可江波動星斗과, 남송(南宋) 때의 시인 양만리(楊萬里)의 시구[何人有筆筆無塵 溪一幅爲寫眞]를 쓴 것 등 4점이다.

특히 우집이 쓴 시구를 쓴 주련은 '소동파의 문장은 세상에 드무니, 귀양길 강물결에 별빛도 따라 움직이네'라는 시구로, 자신을 소동파에 견준 추사의 학문적 자부심과 멀리 귀양 가는 착잡한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추사가 자신이 쓴 시 상선암[上仙岩]의 기승(起承) 부분을 쓴 것[行行路轉峰廻處 一道淸泉天上來] 2점과 자신의 시 옥순봉(玉筍峰)의 전결(轉結) 부분[芙蓉萬朶自珊瑚 君比人間凡草木]을 쓴 것 2점이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주련'

특히 '상선암'을 쓴 첫 번째 시구는 '가고 또 가는 길 돌아 산봉우리 도는 곳에, 한 줄기 맑은 물 하늘 높은 곳에서 쏟아지네'라고 풀이되는데, 추사 자신의 귀향길에 마주치는 산천의 아름다운 모습과 정한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 판각은 양각으로 조각하고 글자 위에는 푸른 색을, 배경에는 흰색 도료로 마감한 것으로 비교적 판각의 수준이 높으며, 추사의 특징적인 필체가 그나마 잘 드러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양백기사품십이칙(揚百猗事品十二則)'의 한 구절을 쓴 것[田家敢籬 幽蘭遙芳] 1점이다. 추사 주련의 두 번째 유형과 같이 양각으로 조각했고 글씨는 청색이고 바탁은 흰색인데, 판각자가 다르고 보존상태가 제일 좋다.

/고창=김영식기자

장수군, 가야문화 지킴이 구성식 갖고 위촉장 수여

장수군은 21일 오후 1시 30분 장수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문화재주민공감정책사업인 '1500년 잠에서 깨어난 장수가야'의 지킴이 구성식을 갖고 지킴이들의 위촉장을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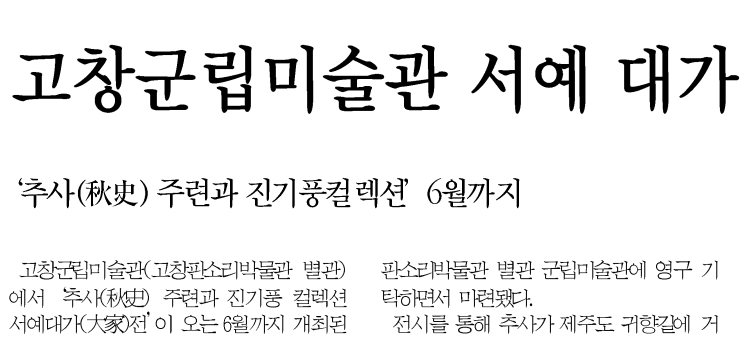
또한 군산대학교 곽장근 교수와 고령대가야 박물관 정동락 학예연구사로부터로부터 '장수군 가야문화의 역사적 의미와 활용방안', '고령지산동고분의 현황과 세계 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 장수가야와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마련했다.

장수가야 지킴이는 장수지역 가야문화유산 인근지역민 등 4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 현장답사, 친선교류 등을 통해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문화유산의 보존에 앞장서게 된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이번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 '1500년 잠에서 깨어난 장수가야'를 통해 장수군민의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증대와 세계유산 등재추진 등에 대한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서 "앞으로 학술대회, 학술용역 등 체계적이고 증명가능한 학술자료 확보를 통해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싱그런 춘향과 몽룡의 '아매도 내사랑아' 공연

남원에서 펼쳐지게 될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창극 '광한루 연가'가 올해는 네번째 작품인 '아매도 내사랑아'로 춘향과 몽룡의 싱그러운 사랑을 그린다.

남원시는 "올해 국·도비 2억 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더욱 양질의 공연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선보일 광한루연가Ⅳ '아매도 내사랑아'는 춘향전의 기존 이미지와는 다른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관객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의 소년과 소녀를 보는 듯한 밝고 수줍고 싱그러운 열여섯 춘향과 몽룡의 사랑을 만나게 된다. 또한 조금씩 사랑을 키워나가며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다뤄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인다.

공연 단체인 남원시립국악단은 극본 최기우(극작가), 연출 류경호(전주대 교수)을 중심으로 대본 리딩에 들어가 본격적인 공연 준비에 나섰다.

상설공연 광한루연가Ⅳ '아매도 내사랑아'는 오는 5월 14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9월말 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펼쳐질 예정이며, 휴가철인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매주 목, 금, 토요일 3일간 연속 공연하게 된다.

이 공연은 문화관광부와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남원시는 2013년 공연을 시작해 지난해 누적 관객 수 3만 명을 돌파한 바 있다.

지난해 공연작품인 광한루연가Ⅲ "열녀춘향"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00여명 가운데 재관람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96.4%,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94.4%로 나타나 공연을 관람한 대부분의 관객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원=유영철기자

본사 전국청소년마술대회 개최

26일 오후 3시 전주중부비전센터

'꿈 희망 그리고 나 너 우리' 주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이 주최하고 전주매일신문사가 주관하는 '제6회 전국청소년마술대회'가 26일 오후3시 전주 중부비전센터 비전홀에서 개최된다.

'꿈, 희망, 그리고 나, 너, 우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마술경연대회는 인천, 서울, 광주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온 청소년 마술동아리들이 경합을 벌인다.

이날 경연 최우수상 시상팀 에게는 전주시장상과 트로피, 상금 50만원이 수여되고 우수상은 전주시의회 의장상과 트로피, 상금 30만원이 수여되고 장려상 또한 동아보건대학교 총장상과 트로피, 상금 20만원이 수여된다.

이외에도 인기상, 특별상, 창의상등 잘하는 팀을 위한 많은 상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연 이외에도 KBS1TV 가요무대에 출연한 젊은 트로트 가수 정해진과 프로마술사 지혜준이 특별무대를 구성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회를 주관한 조봉성 전주매일신문 대표이사는 "작년에 이어 전국청소년마술경연대회를 연속으로 주관 할 수 있어 영광이다"며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청소년들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완벽한 행사를 만들겠다"라며 각오를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이 주최하고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신문사가 공동주관하며, 동아보건대학교, 전주시, 석정수, 임실푸르밀이 후원한다.

/김민근기자

꽃과 화병의 화면대비를 강렬히 표현한 박상규 작품

색채조화 서양화 · 경건한 불화 '박상규 · 조경순 부부' 작품전 교동아트미술관, 4월 3일까지

'또 다른 시선, 박경순·조경순 부부 전'이 22일부터 4월 3일까지 교동아트미술관에서 열린다.

박상규는 이번 전시에서 작품 속 꽃과 화병의 화면대비를 강렬하게 표현하면서도 적절한 온랭의 색채 조화로 안온한 느낌을 꾀하고자 했다.

조경순 작가는 경건하고 화려한 불화를 선보인다.

이 작품들은 일반인이 감상하는데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불상의 손모양과 머리회관 등 위주로 감상하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된다.

한편 부부는 서양화가와 한국화가로 비록 활동 장르는 다르지만, 그림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삶의 면면을 채색해 가고 있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3월 22일〉

▷쥐띠
48년생: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운.
60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말과 행동에 주의를 요하는 운이다.
72년생: 금전운이 약하니 투자나 투기는 삼가고 금전관리에 유의하라.
84년생: 다른 사람의 입장과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운이다.

▷소띠
49년생: 일시적인 감정으로 행동하면 실패가 따른다.
61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
73년생: 고집은 금물. 자신도 모르게 주장이 강해지는 운이니 주의하라.
85년생: 감성적인 부분을 겸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

▷호랑이띠
50년생: 늦게 움직이면 놓치게 되니 매사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62년생: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씩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정신적, 육체적 소모가 심한 운.
86년생: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삼가라.

▷토끼띠
51년생: 지나친 욕심은 실망만 가져오게 되니 마음을 비우고 때를 기다려라.
6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경쟁자가 나타난다.
75년생: 계획을 변경하지만 많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87년생: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좋은 때가 아니다.

▷용띠
52년생: 편안한 운이니 하고자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64년생: 주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말속에 답이 있다.
76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 무리는 금물이다.
88년생: 편법을 쓰게 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다.

▷뱀띠
53년생: 좋은 운세이니 미루지말고 행동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65년생: 타인에게 베풀면 덕으로 돌아오는 운이다.
77년생: 처음에는 힘드나 이겨내면 노고에 대한 보답이 있는 운이다.
89년생: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 운이다.

▷말띠
5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많으니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져라.
66년생: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어라.
78년생: 사람으로 인해 힘든 일이 발생하니 사람을 골라 상대해라.
90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니 마음을 비우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양띠
55년생: 기존의 것에 기대해봤자 결실을 맺지 못하니 변화를 가져라.
67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79년생: 외부로 확장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운.
91년생: 금전관리에 주의하고 중요한 물건은 가지고 다니지 마라.

▷원숭이띠
56년생: 뜻밖의 귀인으로 인해 좋은 결실을 맺으며 행운이 따르는 운이다.
68년생: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
80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면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다.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능력을 인정받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운이다.

▷닭띠
57년생: 금전거래는 삼가라. 상대가 처음과 나중의 행동이 다른 것이다.
69년생: 이성이나 친구 사이에 삼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81년생: 순간의 감정으로 움직이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93년생: 원행은 삼가고 일찍 귀가하는 것이 탈이 없겠다.

▷개띠
46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이 있으며 기쁜 일이 생기는 운이다.
58년생: 안정적인 운이다.
70년생: 외부적으로 구설, 시비, 실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2년생: 처음에 손해를 보면 후에 얻게 되니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돼지띠
47년생: 사소한 일에도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운.
59년생: 과음, 과식은 삼가라.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
71년생: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운이다.
83년생: 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불리하니 차분하게 생각하라.